

HaninDiario 한인매일

■ 전화 | 5526-2404 | 5526-5464 ■ CEL | 04455-3563-2158 ■ E-mail : sol6070@gmail.com
■ 은행계좌 ■ Santander | 65-50535887-2 ■ CLAVE | 014180655053588720 ■ HANIN DIARIO SA DE CV

한인매일 연속 보도 찌라시의 진수 엘코레아노 파렴치의 진수 이임걸 영사 탄원서

4화 그러나 찌라시는 침몰한다. (3)

"W측이 주장하는 "영사의 서명 종용"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보도를 이어 왔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하는 W측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면서 피해자 4인의 막판 서명도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서명이었음은 물론 피해자 여성 중 1인이 영사 도착 전에 먼저 서명하고 나갔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증명했다." (엘코레아노)

역시 찌라시 다운 오류와 허위 및

황설수설의 연속이다.

간단히 엘코의 주장이 거짓임을 한인 매일도 한번 증명해 보자. 이임걸 경찰 영사는 멕시코 연방 검찰과 멕시코 내무성, 외무성, 국가 인권위원회 및 국제 인권재판소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문서번호 KMX/16/157, 작성일 2016년 4월 18일)

이 공문에는 기 작성된 (허위) 진술서에 자국 여성들이 서명하면, 바로 멕시코 검찰이 재 진술을 시행하겠다고 서명을 거부하는 자국 여성들을 이임걸 경찰 영사가 설득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경찰 영사의 설득으로 자국 여성들이 서명한 후에도 재 진술이 이어지지 않아 멕시코 검찰이 속였다고 이임걸 경찰 영사가 이를 항의하는 내용도 동 공문에 담겨있다. 물론 공문은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경찰 영사가 자국 여성들의 서명을 설득했다는 "CONVENCIO" 라는 단어와 멕시코 검찰이 속였다는 "ENGANO" 라는 단어의 사용이 확인된다.

영사의 설득으로 서명함이 "자발적 의사"인가?

멕시코 검찰에 기만 당한 경찰 영사는, 기본적 영사 조력 능력이 있거나 한 것인가? 바로 이 허위 진술서가 그대로 구속 적부심에 사용돼 자국민 양모씨가 인신매매의 주범으로 기소 구속되어 현재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엘코 발행인은 경찰 영사의 자필 서명과 공관 직인이 선명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문 내용을 부정하겠는가?

이임걸 경찰 영사는 1월 16일 오후 3시경 멕시코 검찰에 출두했다. 피해 여성 중 1인이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고 검찰청을 나선 시각은 같은 날 1월 16일 자정 즈음으로 경찰 영사 도착 후 약 8시간이 경과한 다음이었다. 이제 피해 여성 1인이 "영사 도착 전에 서명"하고 나갔으며 4인 여성들의 허위 진술서 서명이 "자발적" 이었다는 엘코의 보도는 거짓을 넘어 사기라는 것을 알겠는가? 이 여성은 지병이 있었음에도 멕시코 검찰이 처방 약을 압수했고, 서명하는 조건에 약을 돌려 준다는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먼저 허위 진술서에 서명한 것이다. 엘코가 언급한 "어떤 의미"는 바로 "여명견폐"에 속한다. 또한 약도 빼앗고 잠도 안재우며 외부와의 통신도 단절시키고 화장실 출입도 전면 금지하고 일체의 물이나 음료의 차단은 물론 성폭행에 준하는 인권침해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있었음도 엘코 발행인을 알고나 있는가? 이임걸 경찰 영사는 바로 그 날 2016년 1월 16일, 5인 자국 여성들에 대하여 영사 조력의 가장 기본인 "자국민 접견을 통한 인권 침해 확인"을 전혀 시도도 하지 않았다. 바로 자국민 구속 원인 중 하나인 "이임걸 경찰 영사의 초기 대응 실패"인 것이다. 경찰 영사가

그 다음 날 검찰에 2차 출두했을 때라도 최소한 동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 강력 대응하고 "허위 진술서에 서명을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자국민 양모씨의 구속은 절대 없었다.

피해자 측이나 한인 매일에서 그간 적극 대응하지 않았음을 기

2016년 공휴일 안내

- 1월 1일 [금] 신정 | Ano Nuevo
 - 2월 1일 [월] 제헌절 | Dia de la Constitucion
 - 3월 21일 [월]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 Natalicio de Benito Juarez
 - 3월 24-27일 [목-토] 세마나 산타 | Semana Santa
 - 5월 1일 [일] 노동절 | Dia del Trabajo
 - 9월 16일 [금] 독립 기념일 | Dia de la Independencia
 - 11월 21일 [월] 혁명 기념일 | Revolucion Mexicana
 - 12월 25일 [일] 크리스마스 | Dia de Navidad
- 제헌절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혁명 기념일은 본 공휴일을 그 주 월요일로 변경해 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 기념일만 요일에 상관 없이 해당 일에 쉽니다.

멕시코시티 기상 정보

오늘
내일

최고 : 22
최저 : 7

최고 : 23
최저 : 10



환율안내

오늘 오전 10시 기준

멕시코 페소 (Banamex)
Compra 20.25 Venta 21.00
원화 (외환은행)
사실때 1226 / 파실때 1183

긴급 전화

앰블런스 065
경찰서 066
소방서 068
전화번호 안내 040

한인매일 포토뉴스

멕시코 폭발사고 희생자 장례식



22일 (현지시간) 멕시코 틀테펙의 산 파블리토 폭발시장 폭발로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안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 : 검사 기간

5번 / 6번 : 1월-2월, 7월-8월

7번 / 8번 : 2월-3월, 8월-9월

3번 / 4번 : 3월-4월, 9월-10월

1번 / 2번 : 4월-5월, 10월-11월

9번 / 0번 : 5월-6월, 11월-12월